

“구체성 없고 제주 현실 반영 미흡”

도 어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 현안 보고
 사업비 16조...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담야
 도의회 계획 부실 지적... “1·2차 내용 결과물 없어”

제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0년)이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국토연구원 용역진은 이날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제시했다. 총 투입 예산은 16조25억 원이다.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관리공사, 제주헬

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전거 특구 조성, 제2점단과학 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도민 사회 논란이 돼 온 쇼핑아웃렛은 종합계획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이 10여개 들어가 있다”며 “제주도종합계획인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 계획서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제윤 기획관은 “16조원에 달하는 재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JDC의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태순 의원은 “해양수산 분야를 보면 제주해양 수질이 1등급으로 양호하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해중립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갯녹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균 의원은 “제3차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도 없고, 1·2차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강성균 의원은 이어 “제주의 미래를 이야기 할때 농업을 떼어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 검토가 덜 된 것 같다. 도내 농업 인구가 18%인데 스마트팜을 관광체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총 투자비 16조

25억 원 가운데 농수산분야 예산은 5조7000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이날 오전 가진 현안 보고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고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 확정 시기 연기 및 수정·보완을 주문했다.

양제윤 기획관은 “연내 고시가 안되면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긴다. 내년 7월 새로운 도지사 오면 도지사 공약 계획 수립에 1년이 걸린다. 종합계획 확정후 중간에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오는 11월 2일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확정 고시될 계획이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10월 고티머리 활짝 핀 국화 26일 제주시 애월읍 신영리 한 화원에 국화가 활짝 피어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일·휴가 겸하는 ‘워케이션’ 전국 최고 선호지역 ‘제주’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일과 휴가를 겸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이 새롭게 성장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전국 최고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소셜, 통신, 지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빅데이터 기반 신규 관광트렌드 및 사업발굴-워케이션 후보지 발굴과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워케이션 성장 가능성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제주시와 경주시, 여수시, 강릉시, 춘천시, 해운대구(부산), 속초시, 제천시가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신안군, 포천시, 익산시, 구미시, 양산시 등이 선정됐다.

성장 가능성과 선호도 분석은 문헌과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워케이션’을 떠나려고 할 때 많이 고려하는 요소로 도출된 숙박유형(30%), 장소유형(30%), 퇴근 후 콘텐츠(15%), 식음 및 부대시설(14%), 접근성(6%), IT 기

술(4%), 비대면(2%) 등 7가지를 기반으로 했다.

올해 발표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원격근무 경험률은 코로나19 이전 15%에서 이후엔 74%로 59%포인트 증가했다. 또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 기업의 약 50%가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택근무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약 52%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기준 3명 → 2명
 도의회 관련조례안 가결

내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이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서 강연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수혜 대상 학생은 기존 2만1475명에서 4만 2396명으로 증가되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로 추계된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단계적 일상회복 여건 마련됐다”

어제 김부겸 총리 피력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르면 내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오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완료율이 80%를 향해 가고 있고 이에 힘입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차 유행 초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339명으로, 전 주간의 1561명에 비해 222명(14.3%) 감소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 것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7
 26일 <17시 기준> 누적 **308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듭니다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정성 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